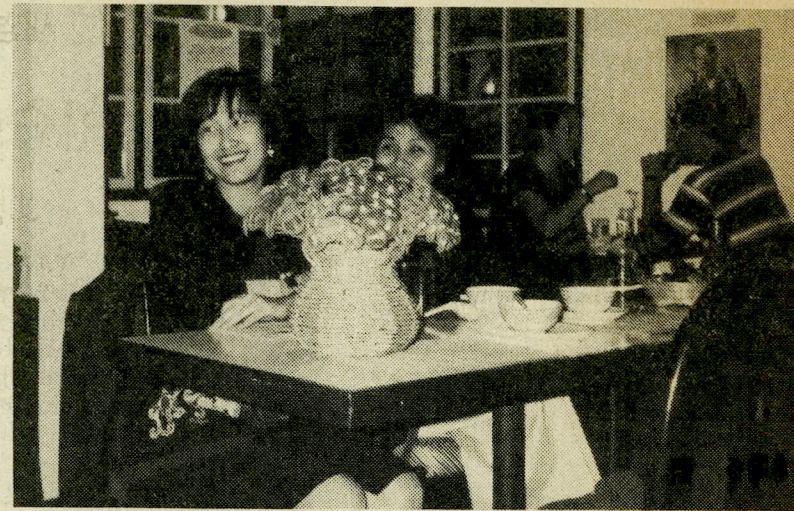


‘에이즈’위기 타이 방콕 현장르포

거리거리 콘돔홍보 ‘확산막기’ 비상

콘돔장식 레스토랑·상품광고 등장...‘시민 불기대회’도 “유일한 예방책” 일반인 거리감 없애기 대대적 캠페인



콘돔레스토랑 식탁에는 한송이에 5바트(우리돈으로 1백50원)인 콘돔꽃이 잔뜩 꽂혀 식탁분위기를 연출한다.

“콘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콘돔 사용을 일상화하십시오!”

에이즈천국으로 악명높은 타이에서 콘돔사용 늘리기운동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에이즈 예방책인 콘돔 사용 확산으로 폭발적인 에이즈 증가추세를 잡아보자는 취지다.

방콕 시내 동쪽 스룻빏 12가 골목에 자리잡은 ‘콘돔레스토랑’은 이런 방콕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기자가 지난 4일 찾아간 콘돔레스토랑은 콘돔이라는 이름 때문에 ‘깃족은 남자들이나 재미로 잠깐씩 둘러보는 식당이겠지’라는 외국인의 예상을 깨고 수많은 남녀 손님들로 크게 붐비고 있었다.

식당 입구에는 “죄송합니다.

이 콘돔은 타이인에게 맞는 크기이므로 유의하십시오”라는 익살스러운 안내문과 함께 콘돔이 잔뜩 쌓여 있어 식당을 들르는 손님은 누구나 무료로 한두개씩 집어갈 수 있게 했다.

식탁 위도 빨강·노랑·파랑 등으로 물들인 콘돔에 꽃술을 단 귀여운 콘돔꽃을 작은 꽃병에 꽂아 꾸몄다. 1백평 남짓 되는 식당은 각각 ‘콘돔 룸’ ‘정관절제술 바’ 등으로 이름붙여지고, 식당주인 메차이 비라바이다가 두 손가락에 콘돔을 낀 채 웃고 있는 큰 사진이 걸려 있는가 하면 ‘저를 사용해주세요’ ‘저를 쓰면 안전합니다’ 등의 글과 귀여운 콘돔그림이 그려진 열쇠고리·티셔츠·우산·크리스마스카드 등이 진열돼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예쁜 콘돔꽃이 꽂혀 있는 식당에서 타이 음식인 ‘동낭평’을 먹고 있던 3명의 타이 여성들은 “이 식당을 이용하다보면 콘돔 사용에 대한 거리감이 없어지는 것 같다”면서 “결혼하면 남편이 꼭 콘돔을 쓰도록 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들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뿐 아니라 사람몸에 가장 피해가 적은 피임법이라는 점에서 콘돔 사용은 더 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전국민 보급운동 적극 펴

타이 콘돔 보급의 선구자적인 이 식당은 ‘콘돔맨’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메차이 비라바이다가 5년 전 그가 이끌고 있는 ‘인구와 공동체 개발협회’(PDA)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문을 열었다. 74년부터 가족계획 사업 보급과 농촌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던 ‘인구와 공동체 개발협회’는 최근 들어 타이내 에이즈 보균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 식당 운영으로 에이즈추방운동기금 마련과 함께 전국민에 대한 콘돔 보급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협회측은 ‘콘돔식당’ 운영 외에도 수시로 ‘콘돔의 밤’ 행사를 마련해 ‘시민 콘돔불기 대회’를 열기도 하고, 방콕 시내 대표적인 흥등가인 팻퐁가에서 매춘 여성들에게 콘돔과 ‘안전팁카드’를 나눠주기도 하는 등 콘돔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잇달아 열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타이가족계획협회(PPAT)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올해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에이즈 보균자가 많은 방콕 시내 60개 빈민지역 주민들에게 비디오테이프·그림·포스터 등을 이용한 에이즈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도 콘돔 사용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있다.

빈민가 순회교육 활발

지난 3일 ‘춤 프라 탕’ 빈민가 탁아소에서 3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에이즈교육’에서도 콘돔이 주인공인 재미있는 10쪽 짜리 만화책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주부들에게 콘돔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한편 콘돔 공개광고가 전혀 이

뤄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타이에서는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광고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슈퍼마켓에서도 콘돔을 화장지·비누 등과 세트로 팔고 있어 남녀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손쉽게 살 수 있을 정도다.

에이즈 보균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관광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한 타이가 쏟은 콘돔 사용에 대한 이상열기가 단순히 ‘콘돔 사용으로 안전하니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 타이를 계속 찾아달라’는 관광홍보 차원을 넘어, 타이 남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보는 것이 타이를 찾은 이방인의 바람이었다.

〈방콕=김미경 기자〉